

정보통신서비스상의 불량이용자(통신요금체납자, 분실/도난단말기)에 대한 관리

우리 협회와 PCS 3사는 건전한 정보사회 확산과 신용사회 정착을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의 고의, 상습적인 통신요금체납자 및 반사회적 불건전 정보유통방지를 위한 정보통신 신용정보 공동관리 사업을 추진키로 합의하고 지난 5월 28일 협회와 PCS 3사간 조인 서명을 했다.

이를 위해 우리 협회는 통신업계의 통신요금체납자 및 분실 또는 도난 단말기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관련정보를 98년 8월 1일부터 통신업계에 본격 제공할 계획이다.

통신업계는 이러한 정보를 제공받아 신규가입자 발생시 통신요금체납자에 대한 신규가입 제한과 분실 또는 도난 단말기의 불법사용 방지를 온라인 시스템상에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향후 우리 협회는 정보통신서비스상의 불량이용자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PC통신사업자 등 정보통신서비스 전사업자를 대상으로 정보통신 신용정보 공동관리 DB 구축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Y2K문제 전문인력 POOL 등록 대상자 확대"

우리 협회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Y2K문제 해결에 필요한 인력약성과 국제통화기금(IMF) 여파로 실직한 전문인력에 대한 재취업 기회 제공을 위해 지난 3월부터 COBOL 프로그래머를 대상으로 「Y2K전문인력 풀(pool) 등록」제도를 마련하고 교육 참가자를 모집해 왔다.

그러나, 우리 협회는 급속한 정보시스템 환경 변화에 발맞춰 6월부터는 보다 폭넓은 전문프로그래머를 양성, 지원키 위해 Y2K홈페이지(<http://www.ccpak.or.kr/y2k>)에 COBOL뿐만 아니라 PL/1, C, ASSEMBLY 언어 등 컴퓨터 프로그래밍 전문인력 수급프로그램을 확대 하였다.

"Y2K전문인력 풀(pool)"등록 자격은 3년이상 실무 경력을 겸비하고 현재 직업을 갖고 있지 않은 실직자로 협회교육을 이수한 후 재취업을 희망하는 사람, 전문인력을 필요로 하는 기관 등은 여기에 자유롭게 등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운영중이다.

또한 협회는 8월에 제4기 교육, 11월에 제5기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어 Y2K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방침이다. 교육내용은 Y2K문제 영향조사 방법론, 해결사례 분석 등 2일간의 기본교육과 Y2K문제 해결툴 선정시 고려사항, 사용방법, 적용 및 실습을 중심으로 3일간의 실무교육이 실시되며, 교육장소는 정보기술교육원, 숭실대, 광운대 등 3곳이며 대학, 기업, 은행에서 전문가들이 강사로 초빙된다.

또한 협회에서는 전문인력 풀(POOL)제를 통해 전산인력의 수급상태를 파악해 등록된 전문가들이 교육을 이수한 후 이들을 필요로 하는 기관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주선할 계획이다.

Y2K 순회 세미나 성황

우리 협회는 지난 6월 20일부터 28일까지 국무총리실, 행정자치부, 정보통신부 등 중앙정부부처와 공동으로 전국 각지역의 Y2K문제 인식제고와 대응축진을 위해 전국을 순회하면서 Y2K세미나를 개최했는데 1천5백여명이 참가하는 등 대성황을 이루었다

이번 세미나는 20일 대구·경북지역을 시작으로 22일 울산·경남지역, 26일 대전·충청지역, 28일 춘천·강원지역에서 각각 개최했으며 지방행정, 교육 관련 공무원들과 병원, 학교, 민간기업체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한편 서울 종합전시장(KOEX)에서는 지난 6월 1일 수도권 세미나를 개최했다.



「SGML/XML의 기술동향과 전망」 세미나 개최

협회는 지난 6월 11일 한국과학기술회관 대강당에서 멀티미디어협의회 SGML 분과위원회 주관으로 광운대학교 이수연 교수 등 산·학·연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SGML/XML의 기술동향과 전망」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분과위원장인 신범식 협회부회장

의 인사말씀을 시작으로 SGML/XML의 개요(정병희 교수 : 배재대), SGML/XML의 현재와 미래(주종철 실장 : ETRI 컴퓨터 소프트웨어 기술연구소), SGML 문서 제작과정 및 활용(이상훈 부장 : 유진데이터), SGML 문서 편집기술(강한중 실장 : 휴먼컴퓨터), 확장가능한 HTML과 메타인텍스(박진우 이사 : 데이터웨이브), 한글에서의 문서생성 및 편집(정병희 연구원 : 한글과컴퓨터), SGML 문서검색을 위한 정보검색시스템(윤진섭 과장 : 3 Soft), 정부 보고서, SGML시범시스템 구축 사례(협회), 산업재산권 CD-ROM 공보(특허청 : 김봉섭 사무관), SGML/XML 정보검색시스템(박영찬 박사 : ETRI 컴퓨터 소프트웨어 기술연구소)등의 내용이 발표되었으며 우리협회를 비롯하여 유진데이터, 한글과컴퓨터, 휴먼컴퓨터 등 7개사의 솔루션 업체들이 각자 보유하고 있는 SGML 솔루션의 간이 전시회를 동시에 마련, 관련업체들과 기관들의 관심고취 및 차세대 XML기술 보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는 SGML채택의 필요성 강조와 인식확산을 위해 마련된 것이라 하겠다. ⊕

